

최교진, SNS·음주운전 논란 ‘사과’ 지역불균형 해소, AI교육혁신 다짐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방북이력, SNS 논란에 사과·해명
음주운전 논란에 “가장 후회하는 일”
사교육 규제, AI교육 기반 마련 등
균형발전 위한 교육정책방향 강조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최고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도덕성, 교육정책 철학을 둘러싼 날 선 공방으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과거 발언과 다수의 북한 방문 이력, SNS 활동 등을 문제 삼아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강하게 의심했고, 최 후보자는 사과와 해명으로 대응하며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이날 최 후보자의 방북 이력은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평양,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포함해 16차례 방북 승인을 받았으며, 일부 언론은 2011년까지 총 17차례라고 보도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북한 땅에 입을 맞추고 싶다고 표현한 발언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에도 방북을 이어간 행적은 국가관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당시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한 공식 업무 수행 차원의 방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대선 직후 최 후보자가 SNS에 공유한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글을 언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급하며 “부산 시민을 모독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직접 작성한 글은 아니지만 경솔하게 공유한 점을 인정하며 상처받은 시민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천안함 폭침 음모론 공유 논란도 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 비극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린 것 아니냐”고 질타했지만 최 후보자는 “국가의 공식 입장을 신뢰한다”며 “당시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위해 공유한 것일 뿐이며 피해자와 유가족께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도 거론됐다. 서지영 의원은 “후보자는 전과 3범으로, 2003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 내각이 ‘전과정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후보자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며 분명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세종시교육감 재직 당시 인사 편향 의혹도 불거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교조 출신 인사를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승진시켰다는 감사 결과가 있다”며 교육부 감사보고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후보자의 교육정책 분야 견해도 집중적으로 검증대에 올랐다.

최교진 후보자는 영어유치원과 유아대상 조기 사교육 문제에 대해 “4세 고시 등 조기 선발 테스트로 학부모 불안을 조장하는 사교육을 규제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라며 “학원법과 공교육정상화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을 두고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절차적 합리성과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돼 현장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치겠다”고 밝혔다. 또 “교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학생 정서 안전망과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해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며 “AI 시대를 선도할 교육혁신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략을 언급하며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고양시 UCLG ASPAC 총회 막바지 개최준비 총력

고양시가 오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25 제10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고양 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아시아·태평양을 비롯해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 20여 개국 220개 지방정부에서 약 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총회의 주제는 ‘미래를 위한 자족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와 지역’이다. 이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등 다양한 도시 혁신 사례가 발표된다. 메인포럼에서는 가오 진 중국 이우시 부시장과 다리아 텔리 호주 지방정부연합 부위원장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고, UN 특사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 협력 비전을 제시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7월 서울 찾은 외국인 관광객 ‘역대 최대’

7월 136만명 방문, 전년비 23.1%↑
체험형 관광에 ‘케데헌’ 열풍 더해져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110만 명) 대비 23.1% 증가한 136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인 2019년 같은 달보다는 18.2% 많은 수치다. 국가별로는 관광객은 중국(47만 명), 일본(24만 명), 대만(16만 명), 미국(10만 명) 순이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총 8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19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며 동기간 기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서울시는 최근 늘고 있는 글로벌 MZ세대 관광객이 선호하는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안전하고 스마트한 디지털 중심 교통·숙박 인프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매력 등이 관광객 증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케데헌’ 열풍이

더해져 동북아시아는 물론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등 다국적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9월 ‘3·3·7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발표 후 전 세계적인 여행트렌드인 ‘혼행(혼자하는 여행)’과 현지인 일상을 참신하게 경험하는 ‘노-노멀(No-Normal)’ 등을 반영한 전략을 추진하며 탄탄한 관광핵심유치 기반을 다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는 K-콘텐츠 체험관광 확대, 혼자서도 여행하기 편리한 관광 인프라 구축, 펀시티(Fun City) 실현을 위한 사계절 축제를 진행했다.

한편, 서울시는 ▲트래지 트래블 선정 ‘MZ세대에 가장 사랑받는 도시 4년 연속 1위’ ▲트립어드바이저가 뽑은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1위’ ▲글로벌 트래블러 선정 ‘최고의 아시아 레저 목적지부문 1위’를 동시에 차지하면서 글로벌 MZ를 비롯한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현진 기자

파주~개성 잇는 ‘DMZ 마라톤’ 추진 청신호

파주시, 통일부에 대북접촉 승인 받아
지방정부 주도 남북교류 모색 ‘주목’

파주시가 ‘파주~개성 디엠지(DMZ)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추진을 위한 대북 접촉에 대해 통일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았다. 시는 지난 27일 북한주민접촉신고가 승인되면서 절차적 제약 없이 독자적인 대북 교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파주시는 지난 8월 7일 김영일 시장이 직접 통일부를 방문해 북한주민접촉신고서를 제출했고, 이어 8월 13일에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신고 접수 후 20일 만에 이뤄진 신속한 승인은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확대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번 승인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

진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 신뢰 회복의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임진각을 출발해 통일대교와 비무장지대(DMZ)를 지나 개성을 거쳐 다시 임진각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기획됐다. 세계 10여 개국에서 약 2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로 치러질 전망이다.

김영일 파주시장은 “중앙정부와 민간 교류 경험이 풍부한 단체와 협력해 남북대화 통로를 열어나가는 것이 관건”이라며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반도와 세계가 평화로 이어지는 상징적 무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회가 성사될 경우 전 세계인이 함께 DMZ를 달리며 분단을 넘어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강동송과 학생 마음건강 돌본다

마음키움 사회정서 교육의 날 확대
자기조절·인식 등 정서적 성장 도와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동송과교육지원청(교육장 조현석)이 오는 2학기부터 ‘마음키움 사회정서 교육의 날’을 초·중·고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가운데 최초 시도로, 내년 서울시 전체 확대 운영을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사회정서 교육은 ▲자기인식 ▲자기조절 ▲관계인식 ▲관계관리 ▲공동체 가치 인식·관리 ▲마음 건강 인식·관리 등 여섯 가지 핵심 역량을 기르는 프로그램으로, 단순 위기 대응을 넘어 일상 속 정서적 성장을 습관화하고 학교 공동체 내에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동송과교육지원청은 학생 발달단계별 5단계(초1~2, 초3~4, 초5~6, 중

학교, 고등학교)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조·종례, 자율활동 등 학교 활동 전반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지도안, 활동지, PPT, 동영상, 명상 자료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개발해 온라인 자료실을 통해 교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사지원단 운영 ▲교장·교감 및 업무담당자 연수 ▲현장 사례 공유회 등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현석 강동송과교육장은 “정신건강에도 ‘생명의 골든타임’이 있다”며 “‘마음키움 사회정서 교육의 날’이 강동송과에서 시작해 학생 한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서울시 전체 학교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마음키움 사회정서 교육은 초5·중1·고1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현진 기자



▲시진핑 “중러 발전·국제 정의 수호에서 상호 지원”

/사진 뉴시스

▲트럼프 “푸틴-젤렌스키 회담 어려울 듯…3자 회기는 가능”

▲대만, 日후쿠시마 식품 규제 완전 해제 방침…14년 만에 철폐 수순

▲美 벌써 차기 대선 열기…공화당은 밴스, 민주당은 뉴섬 선두

▲트럼프 “코로나 백신 효과 데이터 공개하라”…CDC 혼란 속 제약사 압박

▲WTO수장, 슬로베니아 전략포럼서 세계무역진흥의 기반 강화 요구